

제목 : 치킨 쿠폰과 손 편지

개구쟁이 두 아들 녀석을 초등학교에 보내기 전 나는 사회 초년생의 떨림이랄까? 아니 그보다 더한 초조함에 가까운 심경으로 학교 가는 아이들보다 더 심란했다.

주위에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학부모들의 뒷바라지 이야기. 소풍갈 때 싸 준 도시락이며, 스승의 날 꽃바구니는 물론 백화점 상품권. 김장 때마다 들어다 나른 김치통 덕분에 자녀가 상을 받고, 학급 반장이 되고, 수업 시간에 칭찬도 많이 받는다는 어처구니없지만, 웃어넘길 수 없는 이야기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먹고살기 급급해 학교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으셨던 부모님들과 달리 교실로 찾아오시는 친구들의 부모님들 손에는 늘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찾아오는 횟수와 들려진 선물에 따라 늘어나는 선생님의 칭찬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된 ‘선물 비례의 법칙’ 혹은 ‘치맛바람의 법칙’이었다.

진정한 스승의 은혜를 퇴색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모멸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해야 하는 부모의 당연한 희생이며, 자식을 학교에 보낸 죄인으로 감수해야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라 여겨지고 있는 당시의 세태에 나는 진저리가 났다.

부모님 생신 때도 미진한 음식 솜씨 덕분에(?) 늘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 내가 애들 학교 보내면서 선생님들 뒷바라지에 요리 학원을 다녀야 할 판이 된 것이다.

벌써부터 밀려오는 짜증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렇다고 다른 학부모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을 나만 행하지 않는다면, 수업 시간에 꺾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앉아 시무룩해 있을 아이 얼굴이 떠올라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맘때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발효되었다.

처음 시작된 시점이라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실행에 대한 기준도 애매해 실행 여부에 관해 설왕설래도 많았지만, 나는 내심 너무나 기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고민할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그렇게 3월 신학기가 지나고 5월에 접어들어 스승의 날이 가까워져 갔다. 내 마음은 ‘어찌해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 갈팡질팡 멀미가 날 즈음 학교 알림장에 스승의 날 공지 사항이 올라왔다.

‘스승의 날 공지사항: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은 마음만 받겠습니다. 꽃 등 일체의 물품을 받지 않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폭 쉬어진다. 소화제 100알은 족히 먹은 듯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다.

‘그래~ 이렇게까지 하는데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있겠어?’

안도감에 젖어 있었던 스승의 날 당일 오후 4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헉~!’

휴대전화에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 휴대전화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벨소리가 울리는 3~4초 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데이터가 이리저리 조합되며 복잡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애가 학교에서 싸웠나?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버릇없이 굴었나? 아님, 스승의 날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고? 설마! 선물을 안 보냈다고 전화까지 하나? 혹시 우리 애만 선물을 안 보내고 다른 애들은 다 보냈나? 진짜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뭘 준비해야 하나? 오늘 못 보낸 건 깜빡했다고 해야 하나? 그건 너무 뻘한 거짓말인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느낀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살며시 귀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시죠?”

“네, 선생님~ 선생님도 안녕하시지요?”

“네…….”

안녕하시냐는 안부에 땀을 들이며 대답하는 선생님의 대답에 나는 가슴이 더 쿵쾅거리며 궁금증에 걱정을 더해 갈 즈음 선생님의 말이 이어졌다.

“어머니 오늘 제가 스승의 날이라 감사하다며 아이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청탁 금지법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커서 받지 않아야 하는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라며 선생님이 꼭 받으셔야 한다고 선물을 내미는 아이를 보면서 바로 매몰차게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오늘 아이 모르게 다시 선물을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해요~.”

“아……, 그래요? 우리 애가 선물을 드렸나요? 저는 준비한 게 없는데, 알겠습니

다. 제가 지금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가 선물을? 나는 준비한 게 없는데 어찌 된 일일까? 혹시 선생님이 다른 아이와 착각하신 게 아닐까? 걸음을 재촉하며 교실에 도착한 나는 선생님이 죄송스러워하며 내미는 상자 하나를 받아 들었다. 얼마 전 화장품을 사며 포장되어 왔던 택배 상자를 챙기던 아이 모습이 그제야 생각이 났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께 드린 선물이 분명한 것이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한 게 없거든요. 저희 애가 대체 어떤 선물을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었는지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엄마 택배 상자까지 챙기며 어떤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시점이라 선생님과 함께 그 선물을 개봉해 보기로 했다. 아이가 선생님 드리려고 손수 준비한 선물이란 말에 선생님도 내심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한 눈치였다.

선물 상자를 열자마자 선생님과 나는 그 자리에서 선물과 편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한참을 교실이 떠나가라 웃음꽃을 피웠다.

아이가 선생님께 준비한 선물 상자 속에는 뺨뺨뺨한 손 글씨로 쓴 편지와 이제까지 모아 온 ‘치킨 쿠폰’ 5장이 상자 속에 들어 있었다.

‘선생님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이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한 것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 소풍 등 생활도 공부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며 나만큼이나 걱정과 우려가 컸을 아이를 따뜻하게 보살피 주고, 놀이도 배움이란 것을 알려 준 고마운 선생님께 아이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치킨 쿠폰’을 챙겨서 넣어 드린 모양이었다. 그 편지와 선물에 선생님도 적지 않은 감동에 웃음 끝에 눈가가 촉촉해지셨다.

“우리 혁이가 마음이 참 이쁘네요.”

‘치킨 쿠폰’ 5장과 편지를 손에 쥐고 선생님과 마주하며 나는 나의 학창 시절이 떠올랐다.

농사일에 지친 부모님에게서 지금 같은 선행 학습은 꿈도 껴보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2학년인데 연필 잡는 법도 깨우치지 못했던 내가 조금씩 공부에 욕심이 생

기고, 글짓기 대회에 나가 상도 받고, 간호사의 길을 걷게 되기까지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던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소풍 날 초밥이며 튀김, 김밥에 이르기까지 진수성찬을 준비한 반장 어머니를 호되게 꾸짖으셨던 무섭지만 다정다감했던 선생님의 진심 어린 칭찬과 응원이 내 인생을 얼마나 많은 발전의 길로 이끌었던가.

학교에 아이를 보내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걱정보다 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걱정해야 했던 이전에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선생님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되새기게 하고 느끼게 해 주는 고마운 법인 것 같다.

‘청탁금지법’이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느낄 스승에 대한 은혜와 제자를 사랑하는 순수한 스승의 마음을 경험할 기회가 과연 자주 있었을까? 왜곡된 시선과 차별받는 사회의 첫 경험을 초등학교에서 이미 겪게 한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까지도 떠안길 수 있으리라.

나는 선생님이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치킨 쿠폰’과 선생님께 써 내려간 편지만으로도 앞으로 올바르게 사랑 넘치는 사회로 향하는 티켓을 선물 받은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다.

앞으로 내 아이, 또 그 아이의 아이가 살아가야 할 세상.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물질만능에 찌든 사회 때문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마음이 사회를 병들지 않게 하기를.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맞서고, 그래서 늘 당당하기를.

지금의 ‘청탁금지법’에 의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세상의 건전한 나비효과를 기대해 본다.